

“역사적 사실 넘어 ‘오월’의 감정 부분 느껴보길”

CULTURE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5·18기념센터, 6월 22일까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특별전 정현주·유재현 기획...낭독부스·오월어머니 참여 워크숍 주목

광주에서 진행 중인 전시가 미술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전시는 노벨문학상 수상 전후에 걸쳐져 있어 각별하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전 그의 ‘소년이 온다’에 주목하고 기획에 착수했다. 기획자의 선구안이 돋보이는 전시다. 전시를 기획할 당시 5·18민중항쟁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한 소설에 집중할 것이다.

더욱이 5·18기념재단 또한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주최로 참여했는데 5·18을 형상화한 작품이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뜻깊은 자존감을 갖게 된 셈이다. 전시를 처음 열었던 2023년 10월(10.5~26)에 1년 뒤 ‘소년이 온다’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 ‘소년이 온다’는 전세계에 큰 울림을 불러일으킨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이 됐기 때문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전 한강 소설가 역시 이 전시가 갖는 의미를 심분 이해하고 ‘소년이 온다’를 대상으로 시각예술로 활용하는데 공감을 했다는 것이다. 기획자들은 말한다.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전시 제안을 해도 성사가 됐을까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려진다고. 직접 연락은 더더욱 어렵고 출판사를 통해 연락을 해도 닿을까. 말과 할 정도로 작가와의 연락은 매우 어려워져서다. 이런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전시가 5·18을 앞두고

막을 올렸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까지 발동된 뒤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기획한 것이어서 각별하다.

‘소리없는 목소리’라는 주제로 25일 개막해 오는 6월 22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열리는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특별전 시가 그것이다. 2023년 전시 때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특별전이 아니었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의 일이었다. 전시가 그때와 대동소이하지만 낭독부스 설치와 개막식 낭독 행사에 참여한 강애심씨, 그리고 오월어머니집 어머니들이 관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낭독부스를 별도로 제작해 전시장에 배치한 점이 달라진 점의 하나다. 낭독부스는 전시 기간 내내 관객들의 관심을 자극할 전망이다. 낭독부스는 원통 모양 실내에 의자에 앉아 ‘소년이 온다’의 각 단락을 이어가며 낭독하고 녹음할 수 있도록 책과 녹음설비를 갖춰 놓았다. 스페인어와 베트남어, 몽골어 등 12개국 언어로 번역된 번역서를 구비해 외국인들 역시 낭독에 동참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전시 개막식에는 ‘오징어게임’ 출연 배우인 강애심씨가 낭독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 개막일인 25일 오후 5시30분부터는 강애심씨와 권지숙 배우가 ‘소년이 온다’ 제6장 ‘꽃 핀 쪽으로’를 낭독한다. 텍스트를 읽는 목소리를 따라 5·18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소생시킨다는 취지다. 강애심씨 역시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흥행에 힘입어 지금은 초대하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2023년 이 전시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도 낭독 퍼포먼스에 참여하게 된다. 인방을 찾지 않았지만 ‘오징어게임’에도 출연했다.

마지막으로 심혜정 영화감독이 제작한 메인영상 ‘꽃핀 속으로’ 속 오월어머니집 어머니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처음 촬영에 임한 어머니는 6명이었다. 그 사이 두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제 영상 속 남은 어머니는 윤삼례, 최은자, 이정덕(5·18시민군 출신 고 이강하 화가 부인·현 이강하 미술관 관장), 장명희씨다. 이 영상에는 외국 관람객들을 위해 영어 자막도 더했다. 이들 4명과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이 참여해 오는 6월 4일 오후 4시 ‘오월이야기-사물의 기억’ 워크숍을 앞두고 있어 각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워크숍 구현은



낭독부스 내부

참여자들이 5·18기념공원을 산책하며 ‘소년이 온다’ 6장을 함께 읽고 전시장으로 돌아와 전시작품을 관람하며, 어머니들과 대화시간이 펼쳐진다. 진행은 전시 기획자인 정현주(포도나무갤러리 대표)·유재현(독일아트5예술협회 공동대표) 씨가 맡는다.

참여작가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했던 심혜정 영화감독을 비롯해 김홍빈(아티스트·설치) 씨와 정기현(아티스트·설치·영상) 씨 3명이다. 김홍빈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전시장 입구에 전광판의 사진을 배경으로 5·18묘지의 영정사진조차 없이 떠도는 영령들의 빈자리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펼쳐져 보여준다. 김 작가는 이 작품을 위해 5·18민중묘지의 영령들의 묘지를 일일이 돌아보며 영정사진과 남겨진 글들을 작품에 투영했다.

강진 출생으로 조선대와 독일에서 공부를 한 정기현 작가는 ‘소리없는 목소리’에 필요한 영상을 위해 재부원공사 중인 옛 전남도청과 분수대 앞을 지나 삼부관까지 답사하며 그날의 동호를 샅가했다. 어느 날에는 동호와 동선이 겹쳐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한다. 자신이 여전히 소설 속의 한 부분과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생각 아래 작품을 제작했다.

중국어와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번역서로 꾸며진 오월의 서기도 꾸며졌다.

전시를 위해 다시 광주를 찾아 정현주 대표와 총괄한 유재현 기획자는 “관람객들이 5·18민중항쟁의 사실을 확인하려고 왔다가 역사적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5·18민중항쟁의 감정적인 부분을 느껴보는 등 심층적인 것들을 더 알아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mailto:rainidea@gwangnam.co.kr)



전통문화관 ‘희경루 풍류소리’ 내일부터 10회 행사 운영

광주의 전통 누각 희경루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 전통문화관은 도심 속에서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는 참여형 공연 프로그램 ‘2025 희경루 풍류소리’를 26일부터 선보인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행사는 ‘희경루: The Timeless Stage 2025’라는 주제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통복식 행렬, 창작 연희, 전통 타악 퍼포먼스, 시민 참여형 체험 마당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선시대 왕실과 지방 관아의 전통 행렬 퍼포먼스를 비롯해 전통 타악 퍼포먼스, 스타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된다. 현장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먹거리 등이 준비돼 있어 시민들의 흥미와 참여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6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개막행사에서는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과 CLARTRIC 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전통 행렬과 현대 퍼포먼스를 접목한 무대로 시민들에게 첫 인사를 전한다.

이어서 5월 3일 사단법인 ROND문화플랫폼의 ‘희경루 트롯풍(풍)’, 10일 양곡트레머오케스트라의 ‘풍류소리, 금관의 빛으로 그러다’, 17일 비담의 ‘국악×재즈 : 두 개의 울림’, 24일 단미·Dan Mi의 ‘희경루 연가’, 31일 불랑의 ‘희(喜)락(樂) 별곡’이 예정돼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mailto:alsqsl94@)



23일 열린 전시 설명회 모습. 맨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홍빈 작가, 심혜정 영화감독, 기획자인 정현주 포도나무갤러리 대표, 유재현 독일아트5예술협회 공동대표.

치유와 성장 담은 ‘천 개의 파랑’ 뮤지컬

‘ACC 페니’ 두 번째 공연 내달 30~31일 예술극장 극장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사장 김선옥)은 ‘ACC 페니’ 두 번째 작품으로 뮤지컬 ‘천 개의 파랑’을 오는 5월 30일 오후 7시 30분, 31일 오후 2시와 7시 등 총 3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1에서 선보인다.

‘천 개의 파랑’은 2019 한국과학문학상 장편소설 부문 대상을 받은 천선란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로, 세상에서 소외된 존재들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경마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형 로봇 기수 콜리와 경주마 투메이를 중심으로 동물과 로봇, 인간 사이의 교감과 우정, 연대를 다루고 있다.

연구원의 실수로 천 개의 단어를 알게 된 로봇 기수는 자신과 호흡을 맞추는 말인 투메이가 달릴 때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스스로 낙마를 선택한다. 그렇게 하반신이 부서진 채 폐기처분만 기다리고 있던 로봇에게 호기심을 느낀 인간

연재는 전 재산을 털어 로봇을 사 오고 콜리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각기 다른 아픔을 지닌 이들이 서로를 통해 치유하고 사랑과 책임, 희생과 용서가 얽히며 그 속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어나간다.

원작 소설이 지닌 목적지만 잔잔한 울림의 이야기는 다채로운 엘디(LED) 판을 활용한 3차원 무대 공간에서 입체감을 더하며 관객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된다.

이번 공연에서 인간형 로봇 기수 콜리 역은 그룹 펜타곤(PENTAGON)의 가수 진호와 서울예술단 단원 윤태호가 맡는다. 또 로봇 연구원 면접에서 탈락한 뒤 방황하는 연재 역은 그룹 오마이걸의 리더 효정과 서울예술단 단원 서연정이 맡아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공연 예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입장료는 R석 7만원, S석 5만원. [김다경 기자 alsqsl94@](mailto:alsqsl94@)



뮤지컬 ‘천 개의 파랑’ 공연 모습.

청년작가 선정공모전에 강동호 작가 선정

6월 4일까지 광주드영미술관서 전시...24점 선봬

광주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풀어 형클고 모아’라는 주제로 한 청년작가 선정공모전을 24일 개막, 오는 6월 4일까지 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갖는다.

드영미술관청년작가 공모선정전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신진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기획전이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2025년 공모전에 강동호 작가가 최종 선정됐다. 출품작은 작가가 최근 진행한 다양한 작업물인 회화 18점과 입체 6점 등 총 24점.

강동호 작가는 자연의 순환 구조와 현대 사회의 반복성을 연결해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바라보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은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이는 친숙한 대상이나 개념을 낯설게 표현해 새로운 감각의 지평을 열기 위한 목적이며, 문학을 통해 일상이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빅토르 시클로프스키(Viktor Shklovsky)의 이론에서 비롯됐다.

작가 작업실 앞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과 동물, 일상에서 얻은 풍경, 사물은 강 작가를 만나 단순화되고 변형돼 우리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온다. 작품 ‘고양이와 오이’,



‘마스크’

‘까마귀와 운석’, ‘나무 그늘’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 관람객에게 상상을 유도해 다층적 이야기를 갖게 한다.

전시명 ‘풀어 형클고 모아’는 작가가 지금까지 진행한 다양한 작업물들을 모아 드영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라는 것에서 기인한다. 작업을 진행하며 직조한 듯 풀며, 헝클고, 다시 모아온 시간의 흔적들을 담아내고자 했으며, 각 작업들이 지닌 과정, 결과, 감성 등 세 가지 매듭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낸 전시라는 뜻을 담았다.

김도영 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익숙함에 가려진 세계의 본질을 새롭게 발견하고, 고정된 관념을 넘어서는 사유의 확장을 이끌어내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동호 작가는 올해 (재)김해문화재단 웰컴데저티니와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 입주작가로 선정된 가운데 앞으로 더욱 활발한 창작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5월 17일에는 드영미술관에서 초등학생 대상 전시 ‘네모의 날개’를 운영한다. 강동호 작가와 함께 전시를 감상하고, 작가의 조형적 언어의 특징을 살린 작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싱어송라이터 닐로 광주 무대 ‘들려줄게’ 내달 9일 광주예당

광주예술의전당은 기획공연 포커스 두 번째 무대로 싱어송라이터 닐로의 단독 콘서트 ‘들려줄게’를 오는 5월 9일 오후 7시 30분 소극장에서 펼친다.

기획공연 포커스(Focus)는 예술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적 만남을 추진한다.

2015년 첫 싱글 ‘바보’로 데뷔한 닐로는 대표곡 ‘지나오다’로 온라인 음원 사이트 1위, 연간차트 4위를 기록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은 뮤지션으로 섬세한 감성을 담은 자작곡을 통해 탄탄한 음원 파워와 독보적인 감성 표현력을 입증해 왔다.

또한 ‘KBS 불후의 명곡’, ‘MBC 복면가왕’ 등 방송에서 활약하며 압도적인 라이브 실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다.

공연에서는 닐로의 대표곡 ‘지나오다’를 비롯해 ‘빛’, ‘넋두리’, ‘내에게’, ‘들려줄게’, ‘스쳐지나’ 등을 통해 관객들에게 한층 깊어진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

메인 간판 신성진, 세컨 간판 원혜영, 드럼 황희규, 베이스 이용규, 기타 장현호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함께해 풍성한 사운드와 현장감을 선사한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입장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김다경 기자 alsqsl94@

